

MB 향하는 검찰...공방 뜨거운 여야

與 “모든 의혹 정점에 MB...스스로 해명해야”

한국당 “한풀이 정치”...국민의당 “회피 안돼”

여야는 1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조준하고 있는 검찰의 다스 비자금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기에 국민의당은 여권에 가까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 전 대통령까지 “정치보복”이라며 직접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모든 의혹의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 전 대통령이 스스로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다스 비자금 정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오늘 새벽 김진모, 김백준이 구속됐고 그 뒷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이뤄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되면서 정례 티타임에 전보다 많은 인사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이는 한 나라의 대통령답지 못한 꼴사나운 모양새고 독재자의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연상된다”며 “이제라도 (이 전 대통령은) 실제적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핵심 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이라고만 둘러대지 말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이실직고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 공

격의 최선봉에 섰던 박영선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측근이 구속되자 페이스북에 “만감이 교차하는 새벽, 눈을 뜨고 법원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동안 참 힘들었고 외롭게 싸웠다. ‘신은 진실을 알지만 때를 기다린다’, 다시 한 번 그 말을 가슴에 새긴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한국당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회의에서 “정치 보복적인 일념으로 댓글 사건에 이어 다스, 국정원 특수활동비까지 엮어서 자신의 목적에 따라 정치적 한풀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정권”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꼭 세워야겠다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다만, 정치보복 프레임을 내세워 일단 대어공세에는 나서지만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방어하기보다 한 발짝 물러서 간접 지원사격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지난해 탄핵 정국 이후 등 돌린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데다 검찰수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결백’까지 방어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김철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받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회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는 등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질문은 사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선관위 관리대책 마련...공무원범죄 신고 최소 1억원 포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도입, 가짜뉴스 및 비방·흑색선전 전담 태스크포스(TF)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6·13 지방선거’ 중점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려는 여론조사 기관과 단체는 시스템, 인력,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선관위는 “뺑뺑방”식 비전문 여론조사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한 특별 대응팀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3대 중대 선거범죄(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공무원의 선거 관여·가짜뉴스 등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소 1억 이상, 5억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을 운영한다. 기부행위, 동창회·향우회·산악회 등 지역적 연고 단체의 선거 관여 행위 등에 대처하기 위해선 전국 43개 광역조사팀이 투입된다.

/김형호기자 khhh@

靑 “보유세 인상 계획 없다”

“강남 집 값 잡기 주력”

최근 강남 집값 급등과 맞물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라는 초강수보다는 일단 강남을 겨냥한 ‘핀셋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7일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며 “일단 강남 지역 집 값 안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집값이 이상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은 안정됐 있다는 점에서 보유세 강화를 거론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는 3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그럴 계획은 없는 것

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속도도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대책의 차원이 아니라 소득 형평성 제고와 전반적인 세제 개편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기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전날 TBS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보유세 인상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전국의 부동산이 다 영향을 받고 강남 이외의 지역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는 한편,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강남 집값 안정에 초점을 두고 치밀하게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동욱기자 tuim@

‘귀국’ 양정철 “백의종군 불변”

문대통령 ‘복심’ 행보 관심...출판기념회 참석 일시 귀국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17일 “지금으로부터 지난해에 제가 했던 선택이 바뀌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백의종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비서관은 이날 미국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더불어민주당 전혜철 의원,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양 전 비서관이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되는 상징성과 영향성, 상관관계가 너무 커서 처신이 두 분(전 의원, 이 전 수석)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양 전 비서관은 “3월, 3월” 하는데 사실 세 사람의 각자 선택은 다르다”며 “전혜철 선배는 정치인으로서 선출직으로 (경기지사) 출마를 결심한 것을 존중해야 하고, 이호철 선배도 원래 자유를 늘 쫓던 사람이니까 자기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저는 두 분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양 전 비서관은 전 의원, 이 전 수석과 함께 이른바 ‘3월’로 불린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공동점이 있는 이들은 지난해 ‘5·9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서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전 비서관은 대선 승리 후 정권 출범과 동시에 뉴질랜드로 떠났고, 최근까지는 일본에 있다가 지난 4월부터는 부인과 함께 미국에 있는 지인의 집에 머물렀다.

양 전 비서관은 이날 향후의 과제와 관련해서 “통합의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며 “이념의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념의 잣대로 지난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를 갖고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서로 증오하고 배제하는 것은 나라의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처한 상황은 통합과제를 이루기에 훨씬 더 다가갔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도 장벽과 경계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양 전 비서관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이 재확인됐다. 양 전 비서관은 해외 체류 중 집필한 책 ‘세상을 바꾸는 언어’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려고 일시 귀국했다.

/김형호기자 khhh@·연합뉴스

대통령 집사 수난사

청와대 안살림 역할...정상문·이재만 이어 김백준도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7일 뇌물수수 혐의에 구속되면서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살림’을 쥔 자들의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박근혜 정부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도 김 전 기획처장편 공적인 목적에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취급하다가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내내 총무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5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의 일원으로 불렸던 이 전 총무비서관은 지난해 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이 드러나면서 발목이 잡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000만~2억 원씩 총 3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7일 구속된 김 전 기획관 역시 ‘MB 집사’로 불릴 정도로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총무기획관으로 일하면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4억 원 이상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동욱기자 tuim@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7
	실용음악학과	10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6(토) ~ 1.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입 원		
		정원내 일반편입 (3학년)	정 원 외 학사편입 (3학년)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8(월) ~ 1.17(수)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 신 대 학 교 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26(금) ~ 2.2(금)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8. 2. 6(화) 오후 2:40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